

기획특집 | Special Reports

축구, 한국과 브라질을 잇는 가교

서호정

브라질은 지구 반대편에 있다. 계절도, 언어도, 문화도, 시차도 모두 다르다. 양국의 산업적 교류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문화적, 인적 교류는 제한적이다. 한국에서 브라질까지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23시간. 만 하루가 꼬박 걸리는 물리적 거리만큼 민간 교류의 거리도 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은 한국인들에게 멀지만 가까운 나라로 인식된다. 바로 축구를 통한 활발한 교류 때문이다. 한국인들은 경쾌한 삼바리듬과 함께 현란한 발재간으로 그라운드를 누비는 브라질 선수들의 플레이를 TV와 축구경기장에서 자주 접해왔다. 한국과 브라질은 축구로 가장 강력하게 연결되어 왔다.

K리그를 점령한 브라질 선수들…30년간 302명 활약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브라질인은 바로 축구선수다. 1983년 출범한 한국프로축구 K리그는 2013년까지 30년 동안 총 608명의 외국인 선수들이 활동했는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302명이 브라질 선수들

이었다. 1983년 당시 포항제철축구단(현 포항스틸러스)에 입단한 K리그 1호 외국인 선수는 호세(Jose)와 세르지우(Serigo)로 모두 브라질 출신이었다. 호세와 세르지우는 포항제철과 제휴관계를 맺고 있었던 브라질의 철광석 채굴회사 CVRD와의 교류 차원에서 영입이 성사된 선수다. 1년 계약을 맺고 1983년 6월에 한국에 왔지만 뚜렷한 활약을 보이지 못하고 떠났다.



전남드래곤즈에서 활약한 마시엘
(이미지 출처: <http://footballk.net/mediawiki/>)

브라질 선수들이 본격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다. 1997년 전남드래곤즈에 입단한 수비수 마시엘(Maciel)은 2003년까지 7시즌 동안 184경기에 나서 10골 3도움을 기록하는 등 꾸준한 활약을 펼쳤다. 1997년 전남의 리그 준우승 및 FA컵 우승을 이끌며 1997년부터 2000년까지 4년 연속 K리그 베스트11에 선정됐고, 2002년 한일월드컵을 앞두고 한국 대표 선수로 귀화하는 것이 고려되기도 했다. 비록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한국 축구팬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산드루(Sandro)는 수원삼성블루윙즈 축구단의 첫 번째 전성기대를 연 브라질 공격수였다. 미드필더 고종수, 잉어 데니스와 함께 ‘고데로 트리오’를 구성해 2001년 아디다스컵 우승을 이끌었고, 리그 경기에선 13골을 넣어 브라질 선수로는 처음으로 K리그 득점왕을 차지했다. 2001년 아시아클럽선수권 대회 결승전에서 결승골을 터트려 수원삼성의 아시아 챔피언 등극도 이끌었다. 한일월드컵이 개최된 2002년에도 전체 경기 10골 2도움을 올리며 이름값을 높였다. 2003년 일본 J리그의 제프이치하라로

이적하며 한국을 떠났다.

K리그 최초 외국인 득점왕-외국인 MVP는 모두 브라질

2002년 한·일월드컵을 전후로 한국축구 인프라에 대한 브라질 내의 인식이 높아졌다. 도도(울산현대), 마그노, 보티, 에드밀손(전북현대), 투타(안양LG, 수원삼성), 모타(전남, 포항) 등 브라질에서도 이름값이 높은 선수들이 대거 K리그에 입성했다. 크루제이루, 바스쿠다가마, 상파울루, 플라멩구 등 브라질 최고의 명문클럽을 거친 이들이 앞 다퉈 K리그로 향했다. 도도와 마그노의 경우는 브라질 국가대표 경력이 있는 특급 선수였다.

이들 중 가장 특출한 활약을 펼친 선수는 수원삼성이 2003년 여름 영입한 나드손(Nadson)이었다. 브라질 올림픽대표로 선발되기도 한 나드손은 입단 당시 “경기 당 한 골씩 넣겠다”는 자신만만한 공약을 내걸었다. 실제로 첫 시즌에 출전한 18경기에서 14득점 1도움을 기록하는 맹활약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나드손은 172cm의 작은 선수였지만, 볼을 다루는 기술이 뛰어나고 폭발적인 스피드에 다부진 체구를 갖춰 문전에서 막을 자가 없었다. 특히 마무리 슈팅의 정확도가 높아 ‘원샷 원킬’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2004년 나드손은 38경기에서 14득점 4도움을 기록하며 수원삼성을 K리그 정상에 올려놓았다. 국내 기자단 투표로 선정되던 K리그 MVP는 그전까지 줄곧 한국 선수들의 전유물이었다. 하지만 그 해에는 나드손의 활약이 독보적이라는 것을 만인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나드손은 프로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K리그 MVP를 수상한 외국인이 됐다.

2007년에는 포항스틸러스의 K리그 우승과 FA컵 준우승을 이끈 브라질 출신 플레이메이커 타바레스(Tavares)가 나드손의 뒤를 이어 브라질 국적으로 K리그 MVP를 수상했다. 2003년부터 포항스틸러스를 지휘한 K



프로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K리그 MVP를 수상한 외국인 나드손(왼쪽)
(이미지 출처: <http://article.joins.com>)

리그 최초의 브라질 출신 감독인 세르지우 파리아스(Sergio Farias)는 2007년 리그 5위로 진출한 6강 플레이오프에서 연전연승을 거뒀다. 결국 K리그 우승을 이뤄 ‘파리아스 매직’이라는 신조어를 낳았다. 파리아스 감독은 2008년 FA컵 우승, 2009년 AFC 챔피언스리그 우승으로 높은 인기를 구가하며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K리그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성적을 거둔 외국인 감독으로 족적을 남겼다.

지난 2013년에도 총 42명의 외국인 선수 중 50%에 달하는 21명이 브라질 국적의 선수였다. 제주유나이티드에서 활약한 페드루(Pedro)는 리그 17골로 득점 순위 3위, 전북현대의 레오나르도는 13도움으로 도움 순위 2위를 기록했다. 브라질 선수들이 한국 프로 축구에 미친 영향력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대하다. 개막을 앞두고 있는 2014년 현재도 브라질 선수들은 K리그 각 구단이 영입을 검토하는 외국인 선수 후보 1순위다.

삼성과 LG 등으로 대표되는 전자제품, K-POP의 높은 인기 등으로

브라질 사람들에게도 한국은 친숙한 나라가 됐다. 2014시즌 수원삼성에 새로 입단한 브라질 공격수 로저는 “한국의 치안이 좋고 환경이 좋다는 사실이 브라질 선수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며 수준급 브라질 선수들이 한국행을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브라질을 꺾은 한국 대표팀

프로축구뿐 아니라 국가대표팀 간의 축구에서도 한국과 브라질은 자주 만나왔다. 1995년 내한 경기를 시작으로 1997년과 1999년, 2002년, 2013년 등 브라질 대표팀은 총 다섯 차례 한국을 방문해 친선 경기를 치렀다. 브라질은 언제나 세계 최강의 명성을 자랑해왔고, 방문 때마다 최고의 스타들을 대동했다. 하지만 경기 내용은 늘 박빙이었다.

1995년 8월 12일 수원에서 열린 첫 만남에서는 카를루스 동가의 골로 브라질이 1-0으로 승리했다. 1997년 8월 10일에는 서울 잠실에서 격돌해 한국의 김도근이 선제골을 넣었으나 호나우두가 득점한 브라질이 2-1 역전승을 거뒀다. 1999년에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결과가 연출됐다. 1999년 3월 28일 서울 잠실에서 열린 경기에서 브라질은 히바우두, 아모로주, 주니뉴 페르남부카누 등을 앞세웠지만 경기 종료 직전에 터진 김도훈의 골로 0-1 패배를 당했다. 이 패배는 브라질이 역대 A매치에서 아시아 팀에 당한 첫 패배였으며, 현재까지도 유일한 패배로 남아있다.

브라질은 2002년 11월 20일에 마리우 자갈루 감독의 100번째 A매치를 기념하는 경기를 서울월드컵 경기장에서 치렀다. 호나우두와 호나우지뉴, 호베루트 카를루스 등 2002년 한일월드컵 우승 멤버가 대거 출동한 이 경기에서는 설기현과 안정환이 득점하며 시소게임을 벌였다. 호나우두가 두 골, 호나우지뉴가 페널티킥 결승골을 터트린 브라질이 3-2로 승리했다. 소위 펠레 스코어로 불리는 화끈한 공방전으로 명승부가 연출됐다.



2013년 10월 한국-브라질 친선경기
(이미지 출처: <http://m.seoul.co.kr>)

가장 최근에 가진 만남은 지난 2013년 10월 12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렸다. 2014년 브라질월드컵을 준비하는 홍명보 감독과 루이스 펠리피 스콜라리 감독이 본선을 위한 평가전으로 삼으며 진검승부를 벌였다. 한국 대표팀은 손흥민, 이청용, 기성용 등 주전 선수들을 모두 소집했고, 브라질 역시 네이마르, 오스카, 다니 아우베스 등 스타 선수들을 모두 불렀다. 경기는 네이마르와 오스카가 득점한 브라질이 2-0 완승을 거두며 우승후보다운 기량을 선보였다.

브라질월드컵이 한국축구에 갖는 의미

2002년은 브라질 축구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해다. 한국에 베이스캠프를 차리고 조별리그를 치른 브라질인 대회 7경기에서 모두 승리하며 통산 다섯 번째 월드컵 우승을 이뤘다. 비록 결승전은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렸지만, 한국에서 시작된 승리 행진은 브라질 축구의 화려한 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

브라질은 한국을 자주 방문했지만, 한국 대표팀이 브라질을 방문한 일은 거의 없었다. 2014년 브라질월드컵은 한국 축구가 브라질 땅에서 역사를 쓸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다. 대한민국 월드컵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홍명보 감독은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한국 남자 축구 역사상 첫 동메달 획득의 쾌거를 이루며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당시 한국 올림픽 대표팀의 결승행 꿈을 가로 막은 것은 브라질이었다.

8강전에서 개최국 영국을 승부차기로 꺾은 한국 올림픽 대표팀은 준결승전에서 브라질에 0-3으로 완패를 당한 뒤 동메달 결정전에서 일본을 꺾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홍명보 감독의 국가 대표 은퇴 무대가 2002년 11월 브라질전이었던 점이다. 홍 감독은 브라질전에 통산 136 번째 A매치 경기를 치른 뒤 태극마크를 반납했다. 2002년과 2012년 그리고 2014년으로 이어지는 홍 감독과 브라질의 인연은 꽤 깊다.

자국에서 월드컵을 개최하는 브라질도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우승을 이룬 스킨리 감독에게 다시 지휘봉을 맡겼다. 한국은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선수로 한국을 4강으로 이끈 홍명보에게 감독을 맡겼다. 브라질과 한국 모두 2014년 브라질월드컵에 거는 기대가 크다. 그 동안 A매치 친선전으로만 만나온 양국이 월드컵에서 맞붙는 상황이 연출된다면 양국 간의 심리적 거리는 더 가까워 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호정 - 프리랜서 축구기자 (네이버 전문가칼럼 '킥오프' 기고)